

노년기 부부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 농촌지역의 노인부부를 중심으로 - *

An Influence of Elderly Marital Intimacy that Effect on Their Consciousness of Caregiving for Partner

조성희** · 김윤정***

Seong Hee Cho · Yun Jeong Kim

Abstract

This study researched 199 elderly couples (389 people) who live in sixteen districts and cities of Chungcheong nam-do. Purpose of this study; First, observing difference of elderly husbands and wives' intimacy and care giving consciousness. Second, understanding how couples' marital intimacy affects on partner care giving consciousness. Research result; First, sexual intimacy of husbands was higher than wives' and economical care giving consciousness of husbands was higher than wives'. Second, elderly husbands and wives' intimacy was a meaningful factor on care giving consciousness, especially effect from cognitive intimacy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hird, husbands' care giving consciousness was only affected by their own intimacy. But in case of wives, not only their intimacy but also husbands' intimacy affected on their care giving consciousness.

* 본 연구는 2010년도 한서대학교 대학원생 교비 학술연구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석사. e-mail: syringes@hanmail.net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e-mail: twoyun21@hanmail.net

주요어(key words): 친밀감(Intimacy), 부부친밀감(Marital Intimacy), 부양의식(Caregiving Consciousness), 노부부(Elderly Marital)

1. 서론

1.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 어떤 국가와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엔 100만 명에도 못 미치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0년에는 339만 명, 2010년에는 535만 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4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11). 우리나라 농가인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9.1%로 3배 이상 높고 1995년(16.2%)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영숙, 황대용, & 이한기, 2007).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평균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 남녀 간 수명의 차이가 8.2년이었으나, 2000년에는 7.3년, 2007년 6.6년으로,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4년 이후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구 중 2세대 가구는 1990년 이래로 별 변화가 없으나, 3세대 가구는 1990년 48%에서 2005년 9%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1세대 가구는 1990년 16.9%에서 2005년에는 34.6%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5).

이처럼 남녀 간 수명차이의 감소와 부부단독가구의 증가는 앞으로 노부부만의 동거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한다. 여기에 노부모 부양을 자녀에

게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의 하나인 효 의식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부모부양의식도 함께 변화해 가고 있으며(김혜경, 2009) 노인의 향후 자녀와의 동거희망도 2007년 42.95%에서 2009년 39.4%(통계청, 2011)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부양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부간의 관계에서 친밀감은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의 사랑의 3요소 중 하나로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개념이며, 친밀감은 종종 애착, 부양과 혼동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되기 어렵기도 한데, 애착이나 부양에 비해 에로틱한 요소, 공동의 교감, 상호적 자기 노출이 보다 두드러지는 개념이다(Wynne, 1984). 이러한 친밀감은 배우자 부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백주희(2005)는 부부간의 사이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부양부담감을 적게 느끼며, 부부관계는 배우자 부양스트레스와 부양자의 심리적, 복지 감각의 영향관계에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우애 주의적 가치관과 배우자에 대한 헌신 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이행옥, 2002).

따라서, 부부간 사이가 가까울수록 부양부담을 적게 느낀다고 할 때 부부간의 친밀감은 부양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나 지금까지는 부부보다는 자녀가 노부부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친밀감과 부양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이금남, 2001; 이위환 & 권용신, 2005; 임미영, 2002; 조운주, 2002; Cicirelli, 1983)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와 관련된 통계적인 수치나, 성인자녀의 동거부양의식의 변화, 부부간 친밀감과 부양부담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노인부양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따라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부양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부간의 친밀감은 서로 상호 공유 적 속성을 강조하는 개념(Broucke & Vandereycken, 1995;

Mss & Schwebel, 1993)이기 때문에 부부를 쌍으로 표집하여 부부간 친밀감과 부양의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노년기의 삶에서 부부 상호간의 친밀감과 부양의식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고, 농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만성질환보유율이 높다는 점(장희선, 2010)을 고려하면,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에 대한 케어와 부양에 있어 배우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노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간의 친밀감과 부양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친밀감 및 부양의식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친밀감은 배우자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노인부양에서 배우자의 중요성

노인을 부양하는 책임은 가족 중 한사람에게 거의 전적으로 부여되며 이들을 일차적 부양자, 혹은 주 부양자라고 한다. 노인을 부양하는 일과 관련하여, 누가 부양자가 될 것인지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가족원 중 한 명이 주 부양자가 될 가능성은 위계관계에 관한 사회적 규범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계관계에 따를 때, 일차적부양자는 배우자이며, 배우자가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인자녀들이 그 다음으로 주 부양자가 된다(김명옥, 2009; 모선희 등, 2005; 우국희,

1997; 정경희, 2004).

간병수발자로 1순위가 배우자인데(정경희, 2004), 이는 배우자는 지난 오랜 세월을 걸쳐 보호자와 동고동락 해왔기 때문에 보호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잘 처리해 줄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보호자라는 것이다(정주영, 2007;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2003). 즉, 배우자 부양자는 다른 부양자보다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양자의 필요에 대해 좀 더 빨리 이해하고(한국노인문제 연구소, 2003; Johnson, 1985)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다(Cantor, 1983; Horowitz, 1985). 따라서 노년기의 배우자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몸이 이플 때에 최우선의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모선희, 김형수, 유성호, & 윤경아, 2005).

노인의 신체적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도 배우자가 34.2%, 장남·며느리가 22.7%로 배우자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김명옥, 2009), 미국의 경우에도 비공식 부양자 중 배우자가 33%, 성인자녀가 36%, 다른 친척이 19%, 친구나 이웃은 12%로(Cantor, 1983)로 배우자가 성인자녀에 비해서는 다소 적으나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부양에서 배우자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2. 부부친밀감과 부양의식의 개념

친밀감(intimate)이란 서로가 깊이 알게 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앎과 타인에 대한 앎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Synder, 1997, 박민지, 2006 재인용). Erikson은 성인기 인생의 과업으로 이성과의 친밀감을 들었으며 이러한 친밀감은 친구, 배우자, 가족과의 친밀

한 관계 형성에도 기여한다(장세철 외, 2008). 또한 친밀감은 Sternberg (1986)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에서의 사랑의 3요소 중 하나로 상호존중에 바탕을 둔 개념이며, 친밀감은 종종 애착, 부양과 혼동된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구별되기 어렵기도 한데, 애착이나 부양에 비해 에로틱한 요소, 공동의 교감, 상호적 자기 노출이 보다 두드러지는 개념이다(Wynne, 1984).

부부는 일반적인 이성 관계와는 구별되게 결혼이라는 사회적, 법적 약속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로 일생을 두고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정과 책임을 근거로 시작되는 낭만적이면서도 제도적인 관계이며(최혜경, 강진경, & 신수진, 1999), 친근한 개인적 관계와 유사한 경험에서 오는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지식과 이해, 성적 관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Feildman, 1979, 박소희, 2007 재인용).

따라서 부부 친밀감이 결여될 경우 신체적 증상이나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되며, 또한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사회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정서적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부부친밀감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이경희, 1998). 결국 부부 관계가 사랑을 받고 수용하며, 동등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는 원동력은 친밀감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심창교, 2008). 특히, 부부친밀감은 결혼만족도와 같은 개인적 평가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관계적 속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Moss & Schwebel, 1993),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Wynne, 1984). 또한 전 생애를 걸쳐 친밀한 관계성에서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나는데, 사회정서적인 친밀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강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동의 문제해결성에 있어서의 친밀감이 더 강하다(Wynne, 2004).

따라서 부부친밀감은 단일한 구성체라기보다는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성적요소, 상호 공유적 요소 등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경희(1998)는 이러한 부부친밀감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두어 부부친밀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희(1998)의 부부친밀감의 개념을 인용하여 부부친밀감이란 인지적 친밀감과 정서적 친밀감, 성적친밀감으로 구성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는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최종천 & 김윤정, 2009) 노부부만이 남는 노년기는 부부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즉, 은퇴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된 노년기에 배우자와의 관계는 긴밀해져서 감정적인 관계의 질이 유지되는데(Carstensen, 1993), 노년기 부부관계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정이며 따라서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친밀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nderson (1992)은 은퇴 후 남편과 아내는 상대의 애정적 지원과 성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서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노년기의 성공적인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애정적 지원, 즉 부부친밀감이라고 하였다.

한편, 부양은 다차원적 개념이며 그 차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나, 물질적 원조, 정서적 지지, 신체적 고통을 보살피 주는 일, 외로울 때 위로와 시중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의미한다(채혜선, 윤순덕, 이경숙, & 김효철, 2009). 부양의식은 부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전반적인 태도나 의식으로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내재해 있으며(이정화, 1999), 이러한 부양의식을 김태현(1982)은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으로 분류하였다.

정서적 부양의식은 노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노인의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며 노인의 고립감과 불안을 해소하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제공하는 부양을 의미한다(이윤정, 1994). 신체적 부양의식은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어려움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고, 경제적 부양의식은 노인이 필요로 하는 금전이나 물

질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김태현, 1994).

2.3. 부부친밀감과 부양의식간의 관계

부부간의 친밀감의 욕구에 따라 부부는 상호적인 보살핌을 주고받는 관계로서(최혜경 등, 1999), 중년기의 부부와 비교하여 볼 때, 노년기 부부들이 잠재적 갈등요소들의 심각성은 줄어들고 즐거움은 더 많이 경험하며 애정은 더 많이 표현한다(Atchley, 2000).

이러한 노년기 친밀감은 노년기 우울 감을 감소시키고(Antonucci, 1990), 부부간의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는 우애 주의적 가치관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배우자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높다(이행옥, 2002). 또한, 노인의 삶의 질과 만족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부양자의 행동이라 했으며(김태현, 1982), 부양하고 있는 시점의 부부관계, 즉 부부사이가 가깝다고 느낄수록 부양부담감을 적게 느낀다고 보았다(백주희, 2005). 따라서 노년기 부부간 친밀감과 부양의식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부친밀도와 부부 부양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하므로 친밀감과 부양에 관련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부친밀감과 배우자 부양의식간의 관계를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친밀감과 같은 애착의 감정은 물리적인 거리에 상관없이 성인기에도 유지될 수 있는데,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에 대한 부양서비스 제공이 많았고(조윤주, 2002; Cicirelli, 1983), 조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임미영, 2002). 또한 부모와의 친밀감이 높은 기혼 딸은 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전체 부양의식이 높았으며(이금남, 2001), 가족친밀감이 높을수록 노인

부양의식이 높고(이위환, & 권용신, 2005), 치매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팽재영, 2009). 이와는 반대로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양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antor, 1983).

이와 같이 애착이나 친밀감이 부양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부간의 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3.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군마다 1~17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선정하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이 조사원이 되어 가정방문과 보건진료소에 내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0년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2010년 6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직접 작성이 가능한 노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인당 면접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도에 따라 30~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총 440부(220쌍)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416부가 회수되었으나 부부를 쌍으로 조사하지 않아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18부를 제외한 398부(199쌍)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조사도구

3.2.1. 부부친밀감

이경희(1998)는 부부친밀감을 인지적, 정서적, 성적 친밀감으로 개념 정의 내리고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인지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과 함께 느끼는 정서적 밀접함의 정도를 의미한다. 성적친밀감이란 부부가 성을 개방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 증진을 위한 한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척도의 구성은 인지적 친밀감 5문항, 정서적 친밀감 5문항, 성적 친밀감 5문항으로 총 15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형 척도이다. 요인분석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경희(1998)의 척도구성에 따라 하위요인으로 묶었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남편의 인지적 친밀감 .76, 정서적 친밀감 .71, 성적 친밀감 .82이다. 아내의 인지적 친밀감 .74, 정서적 친밀감 .68, 성적 친밀감 .86이었다.

3.2.2. 부양의식

부양의식은 김윤정(2000)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정서적 부양의식 3문항, 경제적 부양의식 2문항, 신체적 부양의식 3문항으로 총 8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형 척도이다.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남편의 정서적 부양의식은 .86, 신체적 부양의식은 .75, 경제적 부양의식은 .82이다. 아내의 정서적 부양의식은 .85, 신체적 부양의식은 .83, 경제적 부양의식은 .86이다.

3.3.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남편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60에서 70세 이하가 66.3%로 더 많았고, 평균연령은 70.4세였다. 50%가 넘는 노인이 중등 교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이 71.6%이다.

결혼기간은 41년 이상이 61.3%였다. 월평균 소득실패를 보면 100~190만원이 38.2%로 가장 많았고, 300만 원 이상 11.5%로 가장 낮았으며 월평균소득은 145만원으로 우리나라 노인의 월평균소득 182.6원(통계청, 2010)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경제수준만족도는 보통이 44.6%로 가장 많았고,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다가 41.7%로 대부분 보통 이상의 건강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내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70세 이하가 66.3%로 가장 많았고 평균연령은 67.8세이다. 초등학교졸업 이하인 경우가 76.4%로 남편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에서는 농림·어업이 과반수이상으로 직업의 순위는 남편과 같았다. 경제수준만족도를 보면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51.0%로 가장 많고, 건강상태에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2.2%로 남편과 비슷한 경향이다(〈표 1〉).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N=199쌍)

특 성	구 분	남 편	아 내
연 령	70세 이하	106(53.3)	132(66.3)
	71세 이상	93(46.7)	67(33.7)
같은 종교 여부	같다	138(68.3)	138(68.3)
	다르다	60(30.2)	60(30.2)
교육수준	초졸 이하	94(47.2)	152(76.4)
	중학교졸업	55(27.6)	28(14.1)
	고졸이상	50(25.1)	19(9.5)

경제활동	농업	131(71.6)	109(58.6)
	기 타	27(14.8)	14(7.5)
	전업주부, 무직	25(13.7)	63(33.9)
결혼기간	40년 이하	77(38.7)	77(38.7)
	41년 이상	122(61.3)	122(61.3)
월평균소득	100만 원이하	57(29.8)	57(29.8)
	100-190	73(38.2)	73(38.2)
	200-290	39(20.4)	39(20.4)
	300만 원이상	22(11.5)	22(11.5)
경제수준만족	아주부족하다	16(8.2)	19(9.6)
	부족한편이다	74(37.9)	65(32.8)
	보통이다	90(46.2)	101(51.0)
	넉넉하다	15(7.7)	13(6.6)
건강상태	나쁘다	44(26.2)	50(30.1)
	보통이다	70(41.7)	70(42.2)
	건강하다	54(32.1)	46(27.7)

3.4.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PC WIN 17.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과 평균분석, paired t-test,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노년기 부부친밀감 및 부양의식의 차이

4.1.1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친밀감의 차이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간 친밀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표 2〉, 〈표 3〉).

〈표 2〉 노년기 남편과 아내 간 부부 친밀감의 차이

	구분	빈도(N)	M(평균)	표준편차(SD)	Paired-t값
인지적 친밀감	남편	199	3.5729	.5783	1.092
	아내	199	3.5337	.5943	
정서적 친밀감	남편	199	3.1435	.4303	-.230
	아내	199	3.1508	.4053	
성적친밀감	남편	199	2.8945	.5887	2.329*
	아내	199	2.8070	.5862	

*p<.05, ***p<.001

부부간 친밀감을 하위요인으로 묶어 남편과 아내의 인식의 차이를 Paired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성적 친밀감만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2〉).

성적친밀감에서는 남편은 평균 2.89로 아내의 평균 2.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성적친밀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2.30점에서 3.76점 사이이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은 2.30점에서 3.81점 사이에 분포한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은 11번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으로 부부모두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값이 가장 낮은 문항은 14번 ‘우리는 대체로 방을 각각 쓴 다’로 부부 모두 평균값이 가장 낮았다. 따라서 노년기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운명공동체라고 느끼며 각방을 쓰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간의 친밀감 점수 차이가 유의한 문항을 살펴보면, ‘우리 부부는 자연스럽게 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다’로 남편의 점수가 아내보다 높았다. ‘우리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아내의 점수가 높았고, ‘우리 부부는 성관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도

아내의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부부간 성적인 측면에서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4.1.2.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양의식의 차이

부양의식의 요인 간 차이를 살펴보면 신체적 부양의식과 경제적 부양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신체적 부양의식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높았고, 경제적 부양의식은 남편이 아내에 비해 높았다(<표 3>).

〈표 3〉 노년기 남편과 아내 간 부양의식의 차이

	구분	빈도(N)	M(평균)	표준편차(SD)	Paired-t값
정서적 부양	남편	199	3.9514	.6585	.396
	아내	199	3.9330	.6231	
신체적 부양	남편	199	3.8861	.6958	-3.929***
	아내	199	4.0888	.6118	
경제적 부양	남편	199	4.0955	.7627	2.274*
	아내	199	3.9874	.8110	

*p<.05, ***p<.001

구체적인 변수를 살펴보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양의식은 평균 3.75점에서 4.22점 사이에 분포하여 각 문항에 대하여 중양값 이상의 높은 부양의식을 보였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부양의식 역시 평균 3.80점에서 4.22점 사이에 분포하여 중양값 이상의 높은 부양의식을 보였다. 평균값이 가장 높은 문항을 보면 남편은 ‘배우자가 몸이 편치 않을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 줄 것이다’였고, 아내는 ‘배우자가 아플 때 간호해줄 것이다’였다. 반면, 평균값이 가장 낮은 문항으로는 남편은 ‘집안일이나 장 볼 때 도와줄 것이다’였고, 아내는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오락시간을 가질 것이다’였다.

다음으로 남편과 아내간의 부양의식 차이가 유의한 문항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몸이 편치 않을 경우 병원비를 지원해 줄 것이다’는 남편의 부양의식이 높았으나, ‘집안일이나 장볼 때 도와 줄 것이다’, ‘배우자가 아플 때 간호해 줄 것이다’, ‘식사나 세수, 목욕, 용변 등 집단에서의 거동을 도울 것이다’는 아내의 부양의식이 더 높았다. 남편과 아내간의 부양의식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문항 즉, 노년기 부부간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배우자가 아플 때 간호해 줄 것이다’라는 문항이었다. 따라서 부부친밀감과는 달리 하위요인 간 차이가 두드러져 보인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4.2. 노년기 남편과 아내 간 부부 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부부간 친밀감이 배우자 부양의식에 미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기 전 평균차이분석(t-test, one way-ANOVA, 표로 제시하지 않음)을 통해 유의미한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의 경우에는 Durbin-waston 값은 1.840-2.044점 사이, <표 5>의 경우에는 Durbin-waston 값은 1.863-2.061점으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년기 부부간 친밀감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표 4>, <표 5>)에서 자신의 친밀감 점수와 배우자의 친밀감 점수를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이는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친밀감과 배우자의 자신에 대한 친밀감 중 어떤 친밀감이 부양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도 함께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4.2.1. 노년기 부부간 친밀감이 남편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인 남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남편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6.4% 설명하였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남편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25.0%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은 남편의 부양의식에 유의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편의 정서적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이 아내의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체 13개 변수는 남편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31.2% 설명하였고, 아내에 대한 인지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이 클수록 남편의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노년기 부부간 친밀감이 남편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N=199쌍)

변인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모델 I B(β)	모델 II B(β)	모델 III B(β)	모델 I B(β)	모델 II B(β)	모델 III B(β)	모델 I B(β)	모델 II B(β)	모델 III B(β)
(Constant)		3.313***	1.582***	2.164*	4.286***	2.907***	3.391**	1.676*	-.338	-.460
통제 변수	연령	-.01(.05)	-.01(-.11)	-.01(-.11)	-.02(-.14)	-.02(-.16)	-.02(-.16)	.03(.23)	.02(.20)	.02(.19)
	같은종교	.15(.11)	.03(.02)	.05(.03)	.14(.10)	.07(.05)	.07(.05)	.01(.01)	-.11(-.07)	-.11(-.07)
	교육수준	.03(.06)	-.01(-.02)	-.00(-.02)	.01(.01)	-.03(-.05)	-.03(-.05)	.04(.06)	-.01(-.02)	-.01(-.02)
	결혼기간	.01(.11)	.00(.03)	.00(.04)	.01(.11)	.00(.06)	.00(.06)	-.01(-.09)	-.01(-.16)	-.01(-.16)
	소득	.00(.18)	-.05(-.00)	.00(.03)	.00(.00)	.00(.05)	.00(.05)	.00(.20)	.00(.14)	.00(.14)
	경제만족	.05(.06)	.04(.06)	.03(.05)	-.01(.07)	-.02(-.03)	-.02(-.03)	.09(.10)	-.06(.08)	.07(.08)
건강상태	.10(.21)	.09(.19)	.08(.18)	.07(.04)	.07(.13)	.06(.12)	.09(.17)	.03(.15)	.08(.15)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44(.39)***	.46(.40)***		.29(.24)**	.31(.26)*		.34(.34)***	.40(.30)**
	정서적 성적		.23(.15)* .16(.14)*	.15(.10) .23(.21)*		.11(.07) .19(.16)*	.09(.06) .20(.17)*		.12(.12) .18(.18)*	.21(.12) .23(.18)*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02(-.02)			-.04(-.36)			.09(.07)
	정서적 성적			.13(.08) -.13(-.11)			.05(.03) -.01(-.01)			-.01(-.01) -.00(-.00)
F값		2.931**	9.997***	7.903***	1.723	4.050***	3.084***	3.373	9.216***	7.053***
R ²		.064	.312	.312	.025	.133	.120	.077	.293	.284
R ² 변화량			.25.0***	.010		.118***	.001		.219***	.002

*p<.05, **p<.01, ***p<.001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남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남편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2.5% 설명하였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남편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11.8%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양의식에 유의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이 아내의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체 13개 변수는 남편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13.3% 설명하였고, 아내에 대한 인지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이 클수록 남편의 신체적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남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남편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7.7% 설명하였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남편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21.9% 증가시켰다. 그러나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식에 유의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이 아내의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체 13개 변수는 남편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29.3% 설명하였고, 남편의 인지적 친밀감과 성적 친밀감이 클수록 남편의 경제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4.2.2. 노년기 부부간 친밀감이 아내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통제변수인 아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아내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8.2% 설명하였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은 아내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24.1% 증가시켰고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아내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2.6% 설명하였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정서적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이 남편의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남편의 친밀감도 영향을 미쳤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체 13개

변수는 아내의 정서적 부양의식을 32.1% 설명하였고, 아내의 인지적 친밀감과 남편의 인지적 친밀감이 클수록 아내의 정서적 부양의식이 높아졌다(〈표 5〉).

다음으로, 통제변수인 아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아내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5.0% 설명하였고,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은 아내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26.8% 증가시켰다. 또한, 남편의 친밀감은 아내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8.3%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신체적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이 남편의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남편의 친밀감도 영향을 미쳤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체 13개 변수는 아내의 신체적 부양의식을 26.6% 설명하였고, 아내의 인지적 친밀감과 남편의 인지적 친밀감이 클수록 아내의 신체적 부양의식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인 아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아내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10.6% 설명하였고, 아내의 친밀감은 아내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17.2% 증가시켰다. 또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은 아내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2.4% 설명하였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이 남편의 친밀감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나, 남편의 친밀감도 영향을 미쳤다.

모델 III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전체 13개 변수는 아내의 경제적 부양의식을 30.1% 전체 설명하였고, 아내의 인지적 친밀감과 남편의 인지적 친밀감이 클수록 아내의 경제적 부양의식이 높아졌다.

<표 5> 노년기 부부간 친밀감이 아내의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N=199쌍)

변인		정서적 부양의식			신체적 부양의식			경제적 부양의식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β)	B(β)		B(β)	B(β)				
(Constant)		3.713***	1.427	1.633*	4.882***	2.929**	3.068**	3.423**	.800	.485
통제변수	연령	2.1(.18)	.01(.10)	.00(.50)	.02(.17)	.01(.07)	-.00(-.03)	.01(.11)	.00(.03)	-.01(-.01)
	같은종교	.02(.13)	.12(.09)	.07(.05)	.16(.13)	.11(.09)	.03(.03)	.00(.00)	-.15(-.03)	-.03(-.05)
	교육수준	-.01(-.05)	-.01(-.05)	-.02(-.03)	-.03(-.04)	-.05(-.07)	-.07(-.10)	.01(-.01)	-.04(-.05)	-.03(-.07)
	결혼기간	-.00(-.00)	-.00(-.01)	.00(.01)	-.01(-.09)	-.01(-.08)	-.00(-.05)	.00(.04)	-.00(-.04)	-.00(-.03)
	소득	.00(.00)	.00(.00)	.00(.11)	.00(.17)	.00(.13)	.00(.12)	.00(.23)	.00(.18)	.00(.18)
경제만족	경제만족	.13(.16)	.09(.05)	.08(.11)	.09(.06)	.07(.09)	.05(.07)	.23(.23)	.20(.20)	.17(.17)
	건강상태	.01(.03)	.01(.03)	.02(.04)	.02(.03)	.01(.02)	.03(.06)	.05(.09)	.06(-.10)	-.04(-.07)
아내의 남편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정서적 성적		.47(.45)***	.35(.34)***		.47(.45)***	.23(.23)***		.43(.34)***	.33(.24)**
	정서적 성적		.07(.04)	.05(.03)		.09(.06)	.02(.01)		.23(.11)*	.19(.09)
남편의 아내에 대한 친밀감	인지적 정서적 성적			.24(.23)***			.39(.37)***			.22(.16)*
	정서적 성적			-.00(-.00)			.12(.09)			.12(.06)
F값		3.518**	10.351***	8.757***	2.499*	8.186***	8.970***	4.437***	9.517***	7.995***
R ²		.082	.321	.337	.050	.266	.344	.106	.301	.315
R ² 변화량			.241***	.026*		.268***	.083***		.172***	.024*

*p<.05, **p<.01, ***p<.001

5.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 노년기 부부 199쌍을 대상으로 하여 노년기 부부 친밀감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년기 남편과 아내 간 부부친밀감 및 부양의식은 차이가 나는가?

둘째,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친밀감은 배우자 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가? 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성적친밀감이 아내의 남편에 대한 성적 친밀감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부부간의 성 의사소통은 활발치 않은 편으로 6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을 금기시 하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부부생활에서 성 생활의 중요함이 간과되고 성에 대한 표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되어(김기연 외, 2003), 여성은 더욱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남녀의 친밀감 표현에 있어서 남자의 친밀감은 신체적 접촉인 반면 여자의 친밀감은 정서적 유대감이어서 남자는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남성성을 확인하려드는 경우가 많다(서선영, 2006; 이행옥, 2002; 임성선, 2008)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적 부양의식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높았고, 경제적 부양의식은 남편이 아내에 비해 높았다. 한국전쟁 이후 가족 내에서 독점적 경영생산자로서의 도구적 역할이 남성에게 부과되고, 여성은 경제 생산 영역에서 배제되어 가족을 보살피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신수진, 1998). 이에 따라 삶의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이 경제적인 역할을 담당한 존재였고 항상 아내의 수발을 받았기 때문에, 노년에 건강상의 문제로 자녀에게 수발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년의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아내가 아닌 수발을 들어주는 아내를 필요로 한다. 이와는 달리 노년의 아내는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남편을 필요로 했다(김지선, 2008).

따라서 한국 전쟁 이후 부부의 삶을 살아 온 현재의 노인에게 있어, 도구적이고 생계부양자로서의 남편, 표현적이고 수발자로서의 아내의 삶이 노부부의 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남편의 경제적 부양의식으로, 아내의 신체적 부양의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가족부양에

있어서 수발 자가 여성에 편중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양의식에는 친밀감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감 및 관계의 질과 부양부담, 부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백주희, 2005; 이금남, 2001; 이위환 & 권용신, 2005; 임미영, 2002; 조윤주, 2002; 팽재현, 2009; Cicirelli, 198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친밀감 중에서 인지적 친밀감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즉 인지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부양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친밀감이란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정도로써(이경희, 1998), 부부지만 배우자를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부양의식을 높인다는 것으로 노년기 부양에서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있어 함의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과 함께 부부는 모든 삶을 공동으로 살아가고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이해되어 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 노년의 부부는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삶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부양스트레스나 부양부담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자녀 부양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처전략을 향상시켜야 한다(김윤정, 2008)는 측면에서 연구의 제언이 있어왔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왔지만 서로가 독립적인 존재임을 이해시키고, 서로의 독립성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남편의 부양의식에는 자신의 친밀감만이 영향을 미쳤으나, 아내의 경우에는 자신의 친밀감만이 아니라 남편의 친밀감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부간 친밀감이 노년기 부부의 외로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이 아내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 Tower와 Kasl(1996)의 연구결과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남녀의 차이는 장 독립성(field

independence)과 장의존성(field dependence)의 개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장 독립성은 사태를 지각함에 있어 그 사태의 주변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장의존성은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 크게 의존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남자는 여자보다 장 독립성이 높고, 여자는 남자보다 장의존성이 높다(Witkin & Goodenough, 1997). 이러한 성향 때문에 아내의 부양의식은 자신의 친밀감만이 아니라 남편의 친밀감에도 영향을 받지만, 남편의 부양의식은 자신의 친밀감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년기 남편과 아내의 부부친밀감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과 아내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보다는 친밀감 변수가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 부양의식 수준을 높이고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부양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부부 스스로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부부가 같이 하는 취미활동이나 여가생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농촌노부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농촌사회의 수준 높은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좀 더 포괄적인 농촌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는 노인부부의 전반적인 감성에 많은 부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부친밀감의 발달과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쉽게 다가가고 공유하므로 애착관계를 형성 시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들로서, 정서표현성이나 건강한성, 부부의사소통에 따른 이해도 등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교육이 농촌단위로 지원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친밀감이 잘 형성되어진 부부를 위하여 친밀감을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가에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밀감형성이 부족한 경우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부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노부부의 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의 의미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사소통훈련을 통한 자기표현 방법 등의 프로그램을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 활용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가 농촌지역 거주자임을 감안할 때 접근성이 용이하고 농한기를 주로 활용하여 부부 함께하는 건강 체조 교실을 운영한다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이용 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예를 들면 읍, 면의 종합복지관, 각 부락의 노인정, 보건진료소 내 건강 증진 실 등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촌시설을 선정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부친밀감과 배우자 부양의식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부부친밀감과 배우자 부양의식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코자 노력하였으나 조사 대상표집에서 전국이 아닌 충남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부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다른 지역의 노부부를 대상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성을 띤 자료가 되도록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배우자의 친밀감 점수를 투입함에 있어 자신이 지각한 배우자의 친밀감이 아닌, 배우자의 점수를 투입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친밀감을 측정할 때 자신의 친밀감과 배우자의 친밀감에 대한 지각을 함께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강진경, 신수진, & 최혜경. (2001). 결혼지속 년 수에 따른 한국 부부의 사랑구조의 변화 양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51-65.
- 김명옥. (2009). 맞벌이 여성노인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자. (2007). 농촌 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선. (2008). 연리지(連理枝)로 그려지는 노년기 배우자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1). 대학생의 노인부양의식에 관한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정. (2000). 사회적지지로서의 노인부양. *한국노년학*, 20(1), 209-223.
- 김윤정, & 서선영. (2005). 중·노년기 부부간 romantic relationship. *한국노년학*, 25(1), 87-102.
- 김태현. (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현. (1994). *노년학*. 교문사.
- 김혜경. (2009). 아들이족에서의 노부모 돌봄 연구—부부와 노인의 생에서사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3(4), 1-235.
- 모선희. (1997). 노년기 부부관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2), 1-15.
- 모선희 외. (2005). *현대노인복지론*. 학지사.
- 박민지. (2006). 부부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원 가족 문화수준과 가족규칙 및 부부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희. (2007).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특성과 정서표현성 부부 공감, 친밀감 및 여가 공유 의사의 관계.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주희. (2005). 치매노인의 요양시설 입소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부양 대 성인자녀 부양자. *한국노년학*, 25(2), 127-141.
- 보건복지가족부. (2009).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의 실제*. 보건복지부.
- 서선영. (2006). 한국 부부들의 성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수진. (1993) 성인초기 자녀의 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사회 교환론과 상호적 상징 작용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창교. (2008). 노년기 부부 성숙 프로그램개발-개입연구 방법의 적용.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희. (1995). 부부간 친밀감 척도개발에 관한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236-249.
- _____. (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유형.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이금남. (2001). 기혼 딸과 친정어머니의 친밀감 및 부양의식.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정. (1994).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부담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위환, & 권용신. (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노인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지*, 14(2), 165-178.
- 이정화. (1999) 부양의식과 형제자매지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농촌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부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미영. (2002). 가족 친밀감과 청소년의 노인 부양의식과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성선. (2008). *심리학 부부를 만나다*. 아름다운사람들.
- 우국희. (1997) 치매노인 수발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주관적 경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선, & 김윤정. (2010). 도서지역 여성독거노인의 신체적 건강,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의 실태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7(2), 233-260.
- 전길량, & 김태현. (1993). 노모와 성인 딸 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3(1), 17-38.
- 정주영. (2007). 치매 노인 주부양자의 부양에 관한 경험연구-배우자 주부양자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 황대용, & 이한기. (2007). 농가부부의 의사결정 구조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4(2), 373-394.
- 조윤주. (2002). 대학생의 부모와의 애착 갈등 및 부양 의무감과 부모부양의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채혜선, 윤순덕, 이경숙, & 김효철. (2009). 농촌지역 노인 돌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농촌지도와 개발*, 16(1), 1-20.
- 최성재. (1985). 현대화와 한국 노인의 가족에로의 사회적 통합. *한국사회복지학*, 6, 145-165.
- 최종천, & 김윤정. (2009). 농촌지역 여성 노인의 가족형태와 삶의 질. *농촌지도와 개발*, 16(3), 503-532.
- 최혜경, 강진경, & 신수진. (1999). Sternberg의 사랑의 삼각이론의 한국 부부에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47-59.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이*.
- 통계청. (2011). *통계청 DB*.
- 팽재영. (2009). 치매노인 가족원의 부양부담에 관한연구-가족친밀감과 대처전략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ucke, S., & Vandereycken, W. (1995). Marital intimacy: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Clinical psychology*, 15(3), 217-233.
- Cantor, M. H. (1983). Strain among Caregivers: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s States. *The Gerontologist*, 23(6), 597-604.
- Cicirelli, V. G. (1983). Attachment and Obligation Ad Daughters' Motives for Caregiving and Subsequent Effect on Subjective Burden. *Psychology and Aging*, 8(2), 144-155.
- Horowitz, A. (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lderly. *Annual Review Gerontological Geriatrics*, 5, 194-246.
- Johnson, C. L. (1985). The Impact of Illness on Later-life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7(1), 165-172.
- Moss, B., & Schwebel, A. (1993). Marriage and Romantic Relationship. *Family Relations*, 42, 31-37.
- Sternberg, R. J. (1986). A Triangular Theory of Love. *Psychology Review*, 93(2), 119-135.
- Tower, R. B., & Kasi, S. V. (1996). Gender, Marital Closeness, and Depressive Symptoms if Elderly Couple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51B(3), 115-129.

- Witkin, H. A., & Goodenough, C. A. (1997). Field Dependent and Field Independent: Cognitive Style and Their Educational Styl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7*, 1-64.
- Wynne, L. C. (2004). The Epigenesis of Relational Systems: A Model for Understanding Family Development. *Family Process, 23*(3), 297-318.

논문투고일: 2011. 9. 12

1차수정일: 2011. 11. 20

게재확정일: 2011. 12. 6